

# 순천시,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전면 개편

시민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목표  
GPS·QR코드·앱 활용 대여·반납  
이용요금 1시간 무료화 정책 도입  
29일부터 2개월 한시적 이용 중단

순천시가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고 대자보도시(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로 도입 15년을 맞은 '온누리'는 그동안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키오스크 시스템의 잦은 오류 발생과 실물 거치대에서만 대여·반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민들의 시스템 개선 요구가 계속

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 온누리 무인 대여시스템 전면 개편을 결정하고 올해 총사업비 4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GPS, QR코드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차세대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스템을 개발·구축 중에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공영자전거 400대 전면 수리 및 스마트 잠금장치 설치, '온누리' 거치대 철거 및 환경정비, '온누리' 전용 대여·반납 존(Zone) 설치, 이용요금 1시간 무료화 정책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온누리'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순천시가 운영중인 온누리 공영 자전거.

순천시 제공

누리 시즌'로 새롭게 개편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보성군,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야외근무 자원순환 근로자 대상

보성군은 지난 18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근무를 하는 자원순환 근로자 60여 명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자원사업소, 생활자원회수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염 포도당, 얼음물(생수), 쿨토시 등을 지원했다.

현장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인 근무를 통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쓰레기 상하차 시 낙하물 미끄러짐, 차량 운행 및 끼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원순환 근로자들은 야외공간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해 체감온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며 "무더위에 군민과 지역의 생활환경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재할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 종량제 배출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 선정 여수시, 요트 탑승권 등 22종

여수시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22종을 추가 선정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수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탈피, 요트 탑승권 등 새로운 품목을 채택하여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추가 답례품은 △요트 탑승권(92인승) △섬섬옥수수 소금빵·파운드 케이크 △섬섬여수옥수수마들렌·옥수수조청 오란다 △프라이빗 요트투어 △여수돌산갯고등어 △여수달기·속·종합잡쌀떡 △블렌딩 속차 △멸치 △여수옥수수 △참맛여수노루궁뎅이버섯즙·유기농머쉬빈 △섬섬향시에 등 11개 업체 제품 22종이다. 추가 선정 답례품은 8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많은 분이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름방학 원데이 클래스 모집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중마도서관이 여름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책 속의 소재를 활용한 요리 활동을 하는 원데이 클래스 '달콤한 베이킹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달콤한 베이킹 이야기는 오는 8월3일부터 8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유아(6~7세), 어린이(초등 1~2학년)가 모집 대상이다.

강좌는 어린이 그림책 '조개 눈물의 비밀', '복숭아 토끼', '오늘의 아이스크림'을 함께 읽고 요리체험을 해보는 '반짝반짝 바다조개 마들렌(유아 대상)', '새콤달콤 과일 타르트(초등 대상)', '겉바속촉 아이스크림 쿠키(초등 대상)'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에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마도서관(061-797-3886)문의하면 된다.

이용민 중마도서관장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여름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일일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어린이들이 여문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여수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 다음달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3시부터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단 5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오전반(10~12시)은 온라인(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후반(2~5

시)은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성산공원은 최대 400명, 여문공원은 15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설물 수시 점검과 철저한 수질 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 '밤바다 낭만버스킹 퍼레이드' 연다

### 27일 해양공원 일일

여수시가 오는 27일 여수해양공원 일원에서 '2024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버스커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퍼레이드로 여수의 밤을 더욱 밝힐 계획이다.

라퍼커션팀, 포니케팀, 옐카라도팀 등

총 8팀이 출연,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낭만버스킹 1번존(중앙선여시장맞은편)에서 시작하여 해양공원 주무대로 이어진다.

동시에 해양공원 주무대에서는 오후 7시부터 1부 공연으로 30분간 화려한 '파이어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공연 직후 2부로 '댄스 공연'과 '클래식 연주'를 연이어 선보인다.

퍼레이드팀이 합류한 오후 8시 20분부

터는 '버스킹 합동공연'과 DJ준디와 가수 김성수가 진행하는 '스페셜 EDM쇼'가 예정되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춘버스킹도 19일부터 8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웅천상가와 여문공원에서 공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구례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382건,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

씩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

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찾아가는 수도물 안심 서비스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는 나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도물 안심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수도물 안심 서비스는 전문 수질검사원이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는 '수도물 안심확인제'와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이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육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로 이루어진 제도다.

나주수도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나주시민들 대상으로 총 5만 3572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6200가구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나주시를 대신해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주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수도물 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나주시민은 물사랑누리집(lovewater.or.kr) 또는 나주수도지사(1577-0600)로 신청할 수 있다. 조진용 기자